

“한 타석이라도 더” 간절함이 만든 반전 GO! 종욱



KIA 타이거즈의 고종욱이 지난 4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1회말 솔로 홈런을 터트리며 그라운드를 돌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주전들 잇따른 부상 속 6월초 1군 합류 ‘만점 활약’
통산 3할타자 면모 과시 “동료들과 뜨거운 가을 만들 것”



간절했던 한 타석이 고종욱과 KIA 타이거즈의 전반기를 바꿨다. ‘디펜딩 챔피언’ KIA의 2025시즌 전반기에는 절망과 희망이 공존했다.

우승을 이뤘던 라인업 그대로 시즌을 시작하면서 자신감이 넘쳤지만 개막날 부상자가 발생하면서 곁음이 꼬였다. ‘MVP’ 김도영이 개막전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고, 복귀 후 26경기를 뛰고 다시 또 햄스트링을 다쳤다. 김선빈, 나성범도 동시에 자리를 비우면서 KIA 타선에 부상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다.

부상 악몽 속 KIA는 탄식의 불을 보냈지만, 지난한 시간을 견딘 뒤 희망을 보았다. 주축 선수들의 줄부상 속 기회를 얻은 선수들의 절실함이 KIA 분위기를 바꿨다.

‘잇뎀’으로 통했던 이들이 최선을 다해 그라운드를 누비면서 상대를 압박했고, 안정적으로 경기를 뛰자 준비했던 플레이가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더 이상 ‘잇뎀’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리지 않게 된 이들의 활약, 고종욱도 감동의 전반기를 만든 주역 중 한 명이다.

고종욱은 FA신분이 된 지난해 28경기에 나와 36타석을 소화하는 데 그쳤다. 우승을 이끈 다이너 마이트 타선이 견고하게 움직이면서 그의 입지는 좁았다.

올 시즌에도 고종욱은 1군 캠프가 꾸러진 미국 어바인에서 아닌 일본 고치 퓨처스 캠프에서 시즌을 준비했다. 외야에 박재현이라는 눈길 끄는 신인도 등장하면서 고종욱은 6월 6일 뒤늦게 1군 풀업을 받았다.

6월 9일 한화와의 11회 연장 승부에서 상대의 실책 덕분에 공교롭게도 끝내기 주인공이 됐던 고종욱은 “아직 내가 1군 선수가 아닌 것 같다. 선배로서 보여주고 싶었다. 후배들에게 힘이 돼주고 싶었는데, 야구가 쉽지 않다. 빨리 적응하겠다”며 씩스럽게 웃었다.

이후 고종욱은 6월 뜨거운 질주에 마침표를 찍은 선수가 됐다.

6월 25일 키움전에서 대타 홈런을 날리며 승리의 주역이 된 그는 6월 29일 LG와의 원정경기에서는 3안타 활약을 펼쳤다. 이후 SSG·롯데를 상대했던 7월 첫 주에는 3개의 결승타를 장식했다.

고종욱은 “예전에 야구 잘 땀 때는 어떻게 해도 잘 땀는데 이렇게 중요할 때 나오는 게 감사하다. 하루하루 감사하다. 지난해에는 2군에 있었으니까 뛰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꿈만 같다”며 “처음 1군 왔을 때는 시합도 오랜만에 뛰고 심박수랑 리듬이 2군이랑 다르니까 투수한테 쫓기는 게 있었다. 그래도 결과가 조금씩 나와서 감독님이 시합을 뛰게 해주셨고, 그러면서 조금씩 감이 올라온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간절했던 ‘한 타석’이 만든 결과다.

고종욱은 “키움전 대타 홈런을 치기 전에 별로 안 좋았다. 홈런 치기 전 경기에서 3루수 플라이 아웃이 됐다. 그때 1타석만 더 나가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다음 경기에서 감독님이 내보내 주셨고 그 타석에서 홈런을 기록했다. 그다음부터 감이 올라왔다”고 말했다.

간절함으로 기회를 놓치지 않은 그는 눈물의 인터뷰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6월 29일 LG전이 끝난 후 ‘수훈선수’ 고종욱은 방송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쏟아냈다.

고종욱은 “지난해 기억이 쑥 들어왔다. 올 생각은 없었다. ‘고맙다’ 이런 멘트를 하려고 했는데, 아내랑 생각이 나고 갑자기 눈물이 났다. 이제는 안 올겠다. 그때 많이 창피했다. 생일 때랑 예전에 야구 잘했을 때보다도 연력이 정말 많이 왔다. 깜짝 놀랐다”고 웃었다.

어렵게 얻은 기회에서 ‘통산 3할 타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고종욱은 후배들의 활약에 웃는다. 고종욱은 “후배들이 이렇게 잘해줄지 몰랐다. 2군에서 같이 있었지만 힘든 시기가 있었던 애들이 다. (오)선우, (박)민이, (김)호영이 모두 진짜 간절한 애들이라 항상 응원했다. 4위를 하고 있는 게 이들의 역할이 크다”고 이야기했다.

반전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김호령에 대해서는 ‘제2의 전성기’라고 평가했다.

“호령이가 감독님이라 만날 이야기를 한다. 감독님이 호령이한테 비법을 알려주시는 것 같다. 5분 정도 이야기하고 ‘알겠습니다’ 하면 안타가 1~2개씩 나온다”며 웃음을 터트린 고종욱은 “호령이가 많이 늘었다. 제2의 전성기라고 생각한다. 꾸준히 시합 나가면 지금보다 잘 될 것 같다”고 간절함으로 오늘을 만든 후배들과의 뜨거운 가을을 기대했다.

/김여을 기자 wool@kwangju.co.kr



지난 12일 대전한화생명볼파크에서 2025 KBO 올스타전이 열렸다. KIA 선수들도 ‘별들의 잔치’에서 눈길 끄는 활약과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8회말 한화 문현빈의 대타로 들어가 솔로포를 기록한 김태군(시계방향으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표치수 캐릭터로 분장한 김호령, 프로 데뷔 시즌에 올스타전에 참가한 성영탁, 몸쪽으로 공이 오자 심판과 벤치클리어링 퍼포먼스를 하는 박찬호. <KIA 타이거즈 제공>

타이거즈 ‘별들의 잔치’서 빛났다

이범호 감독상·김태군 대타 홈런·박재현 베스트 퍼포먼스상 수상
나눔 올스타, 드림 올스타 8-6 누르고 4연승…17일 후반기 시작



KBO리그 ‘별들의 잔치’가 나눔 올스타의 4연승으로 마무리됐다.

KIA 타이거즈 이범호 감독이 이끈 나눔 올스타(LG 트윈스·한화 이글스·NC 다이노스·키움 히어로즈)가 지난 12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 SOL뱅크 KBO 올스타전에서 삼성 라이온즈 박진만 감독이 지휘한 드림 올스타(두산 베어스·KT 위즈·SSG 랜더스·롯데 자이언츠)를 8-6으로 눌렀다. 나눔 올스타의 4연승이다.

이날 1회부터 투런포를 날리면서 3안타 3타점의 활약을 펼친 LG 박동원이 ‘미스터 올스타’로 선정됐다. 2011년 이병규 이후 14년 만에 LG에서 올스타가 된 박동원은 기아자동차 EV4 차량을 MVP

부상으로 받았다.

0-1로 뒤진 1회말 나눔 올스타가 4점을 만들면서 승부를 뒤집었다.

문현빈(한화), 박민우(NC)의 연속 안타가 나오면서 무사 1·2루. 박건우(NC)와 송성문(키움)이 삼진과 좌익수 플라이 아웃으로 물러났지만 채은성(한화)이 좌측 2루타로 2타점을 올리면서 2-1을 만들었다. 이어 박동원의 투런포가 나오면서 점수는 4-1이 됐다.

2회에도 나눔 올스타의 공세는 계속됐다. 이도윤(한화), 송성문, 박동원이 연달아 적시타를 기록하면서 7-1이 됐다.

드림 올스타에는 강력한 신인왕 후보 안현민(KT)이 있었다.

6회초 무사 2루에서 좌측 2루타로 타점을 올린 안현민은 8회에는 솔로포로 드림 올스타의 6번째 점수를 만들면서 나눔 올스타를 압박했다.

하지만 8회말 KIA ‘안방마님’ 김태군이 문현빈

의 대타로 들어가 좌측 담장 넘어가는 썬키포를 선보이면서 8-6 승리에 기여했다.

승리팀이 된 나눔 올스타에 3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이범호 감독은 승리 감독상과 함께 3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우수 타자상과 우수 투수상은 안현민과 손세(한화)에게 돌아갔다. 우수 수비상은 박건우(NC), 베스트 퍼포먼스상은 전민재(롯데)가 수상했다. 이들에게는 모두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한편 앞선 11일 진행된 퓨처스 올스타전에서는 LG·한화·고양(키움)·SSG·두산으로 구성된 북부 리그 올스타가 KIA·상무·NC·삼성·롯데·KT로 팀을 이룬 남부리그 올스타를 4-2로 꺾었다.

이날 유일하게 말타히트를 기록한 손운준(LG)이 최우수선수로 선정돼 2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2타점을 올린 SSG 최윤석이 우수 타자상, 2이닝 1피안타 1볼넷 6탈삼진 무실점의 강건(KT)이 우수 투수상, 1안타 1타점을 기록한 한지훈(한화)이 감투상 주인공이 됐다. 이들은 각각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끼끼’라는 애칭에 맞춰 원숭이 의상을 입고 충실력을 과시한 KIA 루키 박재현은 베스트 퍼포먼스 수상자가 돼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한편 올스타전을 통해 잠시 숨을 고른 KBO는 17일부터 펼쳐지는 4연전으로 하반기 일정을 시작한다. KIA는 NC와 홈에서 후반기 첫 시리즈를 갖는다.

/김여을 기자 wool@kwangju.co.kr

탁구 임종훈·안재현, ‘세계 1위’ 또 격파

WTT 미국 스매시, 르브링 형제 제치고 우승

한국 남자 탁구의 ‘환상 콤비’ 임종훈·안재현(이상 한국거래소) 조가 월드테이블테니스(WTT) 미국 스매시에서 세계 랭킹 1위인 ‘르브링 형제’를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사진>

임종훈·안재현 조는 13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WTT 미국 스매시 남자복식 결승에서 프랑스의 ‘형제 콤비’ 펠릭스 르브링·알렉시스 르브링 조에 3-1(4-11 13-11 11-5 11-6) 역전승을 낳았다.

이로써 임종훈·안재현 조는 3주 전 WTT 스타 컨텐더 류블라나 결승에서 ‘르브링 형제’를 3-0으로 완파하고 우승한 데 이어 다시 한번 남자복식의 세계 최강자임을 입증했다.

아울러 임종훈·안재현 조는 작년 10월 아스타나 아시아선수권에서 한국 선수로는 32년 만에 우승하고 올해 3월 WTT 스타 컨텐더 첸나이를 제패한 데 이어 네 번째 복식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준결승에서 홍콩의 원준탕·첸보드윈 조를 3-1로 물러세운 임종훈·안재현 조는 중국의 왕추진·량징론 조를 3-0으로 제압하고 결승에 오른 프랑스의 ‘르브링 형제’와 맞닥뜨렸다.

세계랭킹 5위인 임종훈·안재현 조는 르브링 형제의 거센 공세에 잇달아 실점하며 첫 게임을



4-11로 넘겨줬다.

임종훈·안재현의 찰떡궁합이 살아난 건 승부처인 2게임이었다.

2게임 초반 2-5로 뒤진 임종훈·안재현 조는 6-10으로 게임 포인트에 몰렸지만, 거센 추격전을 펼쳐 10-10 듀스를 만든 뒤 13-11로 이기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기세가 오른 임종훈·안재현 조는 3게임을 11-5로 여유 있게 이겼고, 여세를 몰아 4게임도 11-6으로 잡으면서 역전 드라마를 완성했다.

임종훈은 신유빈(대한항공)과 호흡을 맞춘 혼합복식 결승에서 중국의 린스동·콰이만 조에 막혀 준우승에 그쳤지만, 남자복식 우승으로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과 은메달 각 1개를 수확했다.

/연합뉴스

